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발표 및 토론회

92.10.10

1992년 10월 9일(금) 오후 3시~7시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국제회의실 주최: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9일 오후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주최로 '학문후속세대'육성을 위한 발표 및 토론회가 서울대학교 문화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임완호 기자>

학문후속세대 질적저하 우려

조교등 사무직원으로 혹사, 연구는 하루 3~4시간

아르바이트등 생활고 허덕...도서구입비 13% 불과

'학문후속세대'란 다음 세대 학문연구작업을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들, 구체적으로는 대학원생과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연구소나 대학에 취직하기 이전의 연구인력을 뜻하는 말이다.

9일 오후 서울대에서는 이들 학문 신세대에 대한 정책의 미비로 인한 연구의 질 저하문제를 우려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이상희·신문학)가 '학문후속세대 육성방안 토론회'란 이름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남두 교수(철학)는 "사무직원으로 혹사되는 조교, 생계를 위해 부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대학원생 그리고 주 20시간이 넘는 강의를 해야 기본생활이 겨우 유지되는 시간강사들의 체제를 가지고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식민주주의의 전개를 이겨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

는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의 기본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는 가장 집중도가 높은 훈련이 이뤄지고 연구자로서 기초가 잡히는 시기"라며 "이른바 선진국들이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수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도 이 시기가 그들의 연구자로서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다음 세대의 연구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다음 세대 공동체의 생존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대학원에 대한 교육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단정했다. 단지 61년에서 91년까지 대학원생 숫자가 4천7백명에서 9만1천3백4명으로 20배 가량 늘어나도록 한, 가장 해로운 확대정책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 능력 있는 학문후속인력의 양성이라는 대학원제도의 원래 목표와 기능은 바래고 '무직자

수용소' 정도의 대학원상이 형성돼 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진단이다.

실제 조흥식 교수(사회복지학)가 지난 6월20일부터 7월5일까지 서울대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생 2백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에 관

한 실태조사' 결과는 이들의 연구여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한달 평균 생활비(38만4천3백원) 가운데 주거비와 주식비가 50.5%를 차지하고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도서·자료구입비는 13.6%에 불과했다.

또 생활비를 연구활동이나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4.4%에 지나지 않는 반면 부모나 친지들에게 기대거나(9.1%) 연구활동과 무관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41.3%), 전적으로 과외를 통해 얻는 경우도 11.5%나 돼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74.2%이지만 이 가운데 83.9%가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조교직을 맡아야 했다.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44.2%로 하루 평균 3.68시간을 참여하며, 이 대가인 연구비로 받는 액수는 월평균 11만4천9백원에 지나지 않았다. 연구프로젝트 참여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4.1%, "그저 그렇다"는 48.3%, 불만족은 27.6%로 나타났다. 불만의 주된 이유는 △단순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 △시간을 너무 빼앗겨서 △전공이나 학위논문과의 연관성이 적어서 △연구비가 적기 때문 등의 순이었다.

현재 조교를 맡고 있는 응답

자는 13.3%였으며 조교업무에 대해 만족(12.0%)보다는 불만족(40.0%)이 더욱 높았다. 불만의 이유를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연구시간을 많이 빼앗겨서(72.7%) △보수가 낮아서(36.4%) △업무과다(31.8%) △업무에 대한 '보람'이 낮아서(22.7%) 등의 순으로 나왔다. 또 조교의 28.6%가 평균 주당 3시간 정도의 시간강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 및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일의 이종교로 말미암아 개인연구시간을 하루 평균 4.78시간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두 교수는 대학원생에 대해 다달이 34만~36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있는 포항공대처럼 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생에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해 연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대학원생 지원정책을 지나치게 이공계통에 편중시킨다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인문·사회계통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이 인력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발탁, 지원하는 거시적이고 치밀한 정책과 이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국가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인현 기자>